

WTO 가입이 중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

1. 개요

□ WTO 가입에 따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인하가 대부분의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그 동안 강력한 산업보호정책의 수혜를 입어왔던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.

- 중국 자동차 산업은 ▲관세 인하 및 비관세 장벽 폐지에 따른 자동차 수입 증가, ▲자동차 관련 서비스 분야의 외국기업 진출 증가, ▲자동차 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증가 등의 충격을 받게 될 것임.

2.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개방 조치와 그 영향

□ 자동차 수입관세의 인하로 자동차 수입이 증가할 것이며, 특히 수입쿼터가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2006년 이후에는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.

- 현재 자동차 관련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39%이고, 완성차의 수입관세율은 80~100%임(배기량 3,000cc이하 80%, 3,000cc 이상은 100%).
- 게다가 증치세와 소비세 등 각종 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완성차의 종합세율은 122~154%에 달하게 되며, 결국 소매가격은 도착지 기준(cif) 가격의 2.2~2.5배까지 상승하게 됨.
- 그러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06년 7월부터는 완성차 관세율은 25%, 평균 부품 수입관세율은 10%까지 인하되어, 기타 부가세가 현행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종합세율은 54~59%로 대폭 낮아져 고급형 수입차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됨.

- 현행 비관세 장벽 역시 WTO 가입이후 점차 폐지될 것임. 중국정부가 시행중인 비관세 장벽 조치는 ▲지방 및 중앙정부의 완성차 수입 쿼터제 및 허가증 관리, ▲대련, 천진, 상해, 황포, 심천 등 5개 항구와 동북지역의 내륙 1개 지역에 대해서만 완성차 수입 허가 등임.
- o 그러나 향후 수입쿼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5년 후에는 모든 쿼터와 수량제한을 폐지할 것이며, 내년도 쿼터총액을 60억 달러로 정하고 2005년까지 매년 15%씩 늘릴 것임.

□ 자동차 서비스산업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이다.

- 중국정부는 WTO 가입직후부터 외국기업의 자동차 유통시장 참여를 허용하였는바, 외국 자동차업체는 중간 대리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.
- o 또한 자동차 도소매업, A/S, 수리센터, 운송 등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 영역의 참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.
- 동시에 중국정부는 자동차 할부금융 분야의 외자기업 진출을 허용하고 비은행 외자금금융기구의 자동차 할부금융, 보험 등의 영업을 허용할 방침임.
- o WTO 가입 2년후에는 외국은행이 중국 국내 금융시장 진출을 허용, 경제특구 및 일부 지역에서 국내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, 5년 후에는 외국은행의 업무에 대한 지역 및 고객 제한을 전면 폐지할 방침인바,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이다.

□ 중국 자동차 메이커와 외국 대형 업체와의 합작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.

- 그 동안 중국정부는 자국 자동차기업의 이익 보전, 자국 기술 발전 등 자동차 산업 보호 차원에서 외국 자동차 기업 및 합자기업에 엄격한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왔음.
- o 특히 1994년 《자동차산업정책》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, 주요 내용은 첫째, 중외 합자 및 합작의 경우 중국측 지분 50% 이하 불가, 둘째, 합자기업의 자동차 수출시 외환수지 균형 의무화, 셋째, 생산기술의 국산화 추진 의무화, 넷째, 기술이전 의무 이행을 위한 생산공장내 연구기구 설치, 다섯째, 합작 생

산한 자동차 중 동형 차종의 대중국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됨.

- 중국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을 단기간내에 취소 혹은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바, 특히 ▲국산화 의무 규정, ▲부품 수입의 수량 및 품종 제한, ▲외환수지 균형 의무화, ▲기술 이전 의무 이행 및 연구기구 설치 의무화 등 강제규정의 개정이 확실시 됨.
- o 또한 자동차 합자 및 합작기업 설립에 요구되는 중국측 지분 참여 문제는 WTO 합의시 특별한 규정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,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.

3. 평가 및 시사점

□ 중국내 전문가들은 자동차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음.

-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중국산 자동차가 현재 부품, 기술, 품질, 지명도 등 전반적인 면에서 외국산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어, 5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가시적인 경쟁력 제고를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함.
- o 국내 유통, 수출입, 할부금융, 수리 및 A/S, 운수임대, 보험 등에서 시장 개방을 앞둔 중국의 자동차 관련 서비스 시스템은 ▲불건전한 판매시스템, ▲열악한 서비스 수준, ▲할부구매 인식 부족, ▲희박한 서비스 의식, ▲판매망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음. 중국 자동차 할부 구입 비율은 5%에 불과해 인도의 60~70%, 대만의 50~60%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.
- 또한 발전연구중심은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의무 조항 폐지로 부품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함.

□ WTO 가입으로 중국의 자동차산업 개편이 더욱 가속화될 것임.

- 중국정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산업 관련 10개년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, 2005년까지 자동차 생산대수를 310만 대(승용차는 110만 대)까지 확대할 방침임.
- o 또한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난립 상태의 자동차 제조업체

(총 120여 개 업체)를 3대 대형기업(第一汽車, 東風汽車, 上海汽車)을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임.

- 한편, 중국의 승용차 시장수요는 2005년 100만대, 2010년 2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, 2010년 이후에는 수요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. (***)

중국경제뉴스

1. 樊綱, WTO 가입에 따른 개방 충격이 3년 후부터 본격화될 것

-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도전은 향후 1-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3년 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국민경제연구소 樊綱 소장이 최근 전망함.
 - 樊소장은 3년 뒤에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핵심적인 보호장치들이 제거되므로 충격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, 중국 경제의 개혁과 재편도 시장경쟁이 격화되는 3년 뒤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함.
 - 또한 3년 후에는 제조업보다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함.
 - 특히 금융업 중 보험업과 같이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에서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경쟁 압력이 크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, 은행업과 같이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압력이 존재할 것임.
- (解放日報, 2001. 12. 19)

2. 중국 중앙재정공작회의, 내년도 8대 재정업무 방침 확정

- 금년도 1-11월간 중국의 재정수입이 전년동기대비 23.1% 증가한 1조 4,668억 원, 재정지출은 21.8% 증가한 1조 4,504억 원을 기록함.
- 연간 재정수입과 지출 모두 예산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중앙 재정적자는 예산 범위 내로 통제되고 지방재정은 약간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됨.

- 項懷誠 재정부장은 지난 12월 18일 북경에서 개최된 전국재정공작회의에서 내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8개의 재정업무를 다음과 같이 밝힘.

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계속 실시하여 내수 확대에 주력함.

- 내수확대를 경제구조 조정, 경제체제개혁 심화, 취업 증가, 주민생활 개선, 지속 가능한 발전 추진과 결합
- 국채자금에 대한 감독관리 강화

② 수입 증가와 지출 절감에 주력해 연간 예산임무를 완성함.

- 세수 검사 강화를 통한 수입 보장
- 지출관리 강화,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지출 절감

③ 근로자의 임금 지불을 보장함.

④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지방 사회보장자금투입을 늘림.

⑤ 재정정책의 정확한 활용을 통해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함.

- 기업 파산 보조금 보장, 기업법인관리 구조개선, 서부지역 중점 건설프로젝트와 생태환경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, 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투입 증가

⑥ 회계 업무를 강화하고 장부위조 행위를 단속함.

⑦ 재정 법규를 완비하고 재정 감독검사를 강화함.

- 예산, 세수, 국고 관리, 국유자산 관리, 재무회계를 포함한 법률법규 시스템의 구축을 가속화
- 재정자금 운행 과정을 총괄한 재정감독시스템을 적극 구축함.

⑧ WTO 규칙에 따라 재정 세수 법률법규와 정책을 정비하며 경제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 전환을 가속화하고 재정투명성을 높임.(新華社, 2001. 12. 18)

3. 龍永図,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중국 입장 밝혀

- 중국 외경무부 龍永圖 부부장은 지난 19일 WTO 정식회원국의 신분으로 처음 WTO 이사회에 참석,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발표
- 龍 부부장은 뉴라운드 협상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, 다자간 협상은 ① 공평·공정·합리적인 국제경제 신질서 구축 ② 세계경제의 발전과 무역투자 원활화 ③ 선진국과 개도국간 이익 균형 특히 개도국 경제의 발전 등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
- 또한 중국은 WTO 가입에 따른 권리를 누림과 동시에 WTO 규범 준수와 약속 이행을 재차 천명했음. (新華社, 2001/12/20)

4. 중국 경무위, 반덤핑·반보조금·세이프가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강조

- 經貿委는 최근 열린 “반덤핑·반보조금 조치 법률 및 실무 관련 국제세미나”에서 중국의 반덤핑 반보조금 관련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업예비정보메커니즘을 조기 구축 및 완비시켜야 한다고 제시함.
- 즉 외국제품의 충격으로 국내산업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조사 및 국내 수출품이 수입국으로부터 반덤핑, 반보조금 혹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실시
- 중점 업종과 산업 및 중점 국가와 지역의 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예비정보모델을 구축하여 산업 피해를 미연에 방지
- 한편, 반덤핑 조사를 위해 경무위 산업피해조사국이 지난달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함. (人民日報, 2001. 12.20)